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조대훈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국가정체성:
다문화 교육에의 함의

2015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사회교육전공

조 해 리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국가정체성:
다문화 교육에의 함의

조대훈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7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사회교육전공

조 해 리

인 준 서

조해리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5년 7월

심사위원장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이 가지는 국가정체성의 특징과 그러한 특징이 학교 시민사회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 이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교육의 실태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국가정체성을 비판적으로 연구 분석하고 향후 개선되어야 할 시민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빛물학교를 방문하여 사회과 수업 참관과 학생 및 선생님과의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해당 자료 분석을 토대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빛물학교에서 제공되는 검정고시 위주의 교육은 자신의 적성에 맞는 자기주도형 학습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자신의 나이에 뒤쳐진 교육을 받고 있으며, 아이들은 각각의 상처를 갖고 있다.

둘째,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국가정체성을 디아스포라 경험에 의한 다중적 국가정체성으로 특정 지을 수 있고, 이는 어머니의 북한이탈주민 지위가 중국과 남한 모두에서 편견과 차별을 받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여 국가정체성 형성에 불안함과 갈등을 조성하게 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남한사회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를 지닌 채로 국가정체성이 형성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 두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검정고시 중심의 대안교육이 가지는 한계점과 시민 교육적 차원에서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의 상황, 사회적 소수자이자 경계인인 이들을 위해 우리의 학교시민교육이 변화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둘째,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이 남한사회에 적응하여 시민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교육과

이들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바라봐주는 우리 시민사회의 이해와 포용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2. 연구문제	3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4
1.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남한사회적응	4
(1)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개념과 현황	4
(2)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사회적응	5
(3)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학교교육	6
2.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국가정체성	7
(1) 국가정체성의 개념과 유형	7
(2) 북한이탈주민의 국가정체성	9
3. 본 연구에 대한 시사점	12
III. 연구방법론	14
1. 연구방법의 특징	14
2. 연구 참여자의 선정	15
3. 연구 자료의 수집과 분석	16
IV. 빛물대안학교의 학교 교육 또는 특징	19
1. 감정고시 중심의 수업	19
2. 나이보다 뒤쳐진 학력수준	24

3. 상처받은 아이들	26
V. 제3국 출생 탈북학생들의 국가정체성	31
1. 디아스포라 경험을 통한 다중적 국가정체성.....	31
2. 북한이탈주민의 지위에 의해 매개되는 국가정체성.....	37
3. 남한사회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에 근거한 국가정체성.....	41
VI. 결론 및 시사점	45
1. 김정고시 중심의 대안학교 교육이 가지는 한계.....	47
2. 국가정체성 형성의 장애요인 : 시민 교육적 차원에서 방치된 아이들.....	48
3. 경계인을 위한 시민성 교육의 가능성 탐색	49
참고문헌	51
ABSTRACT	54
부록	56

표 목 차

<표 1> 탈북청소년과 제3국 출신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구분에 따른 차이.....	7
<표 2> 연구 참여자 프로필.....	17
<표 3> 국가정체성 관련 개념의 범주화.....	18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국가정체성 : 다문화 교육에의 함의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통일부(2014)에 따르면 2014년 12월 기준으로 남한 사회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2만 7천명이 넘었다. 1998년에 900여 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30배가 증가한 것이다. 이들 중 여성비율이 70%인 점은 눈여겨 볼만하다. 탈북 여성들 중 일부는 중국에 머물면서 한족 또는 조선족 남성과 결혼하거나 사실혼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 이들이 중국 및 제3국에서 출생한 아이를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라고 부른다. 교육부(2014)의 탈북 학생 통계를 살펴보면, 탈북 학생 수는 2013년 보다 161명이 증가하여 총 2,183명이며, 그 중에서도 제3국 출생 탈북 학생 수는 2013년(840명)에 비해 139명이 증가하여 총 979명이다. 제3국 출생 탈북학생들은 북한이 국적인 어머니의 영향으로 북한이탈주민이지만 중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 아버지 때문에 다문화가정의 자녀로 분류된다.

2014년에 방송했던 SBS <닥터 이방인>이라는 드라마에서는 탈북자 출신인 유능한 의사가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인기를 얻었다. 이 외에도 탈북자들에 관한 영화로 <태풍>, <국경의 남쪽>, <크로싱>등이 있었고, TV 토크쇼에서는 탈북자들이 나와서 북한에서의 생활, 탈북 경험, 현재 생활의 어려움 등을 이야기하기도 하며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눈에 들어오고 있다.

이것은 남한 사회에서 탈북자들이 차지하는 자리가 분명히 커졌으며 북한이탈주민들을 바라보는 남한 사회의 시각도 변화하였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교육받을 권리는 일반한국 학생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며, 가장 소외되고 학업 중도탈락률도 높다는 것이 최근 연구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국 사회는 ‘단군 아래 순혈통주의’라는 무조건적인 신화를 가지고 타 민족에 대한 배타성을 강하게 띠어왔으며 이는 특히 동양권의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한 차별적 태도로 이어져 왔다(이한태, 2013). 이러한 차별적 태도가 경제적, 문화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북한 이탈 주민에게도 이어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낮은 교육적 성취와 불안정한 남한사회 적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새롭게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최하위, 최약체 집단이 되어 가고 있다.

특히 북한이탈학생 중에서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비보호 탈북학생’으로 불리며 탈북자 대상 국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이들의 수가 증가함으로 이들 내의 정체성 혼란과 인권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¹⁾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탈북청소년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에 속하는 북한이탈주민 중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계층’²⁾으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 국적의 부모가 중국이나 제3국에서 체류하는 중에 출생한 아이들은 이 법을 근거로 한 ‘보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들은 일반 탈북청소년들이 받는 정착금지원, 학력 인정, 특례입학 전형, 대학등록금 지원 등을 모두 받을 수가 없다. 그렇다 보니 높은 언어 장벽을 넘어야 하고 검정고시, 수능을 통한 대학진학이 쉽지 않다. 설령, 모든 과정을 통과하여 대학교에 입학 한다 하더라도 경제적

1) 2015.3.16., 조선일보, [통일이 미래다] 제3국 출생 탈북子女 ‘지원 사각지대’, Chosun.com

2) 제 2조 1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2683호, 2014.5.28.]

인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3국 출생이라는 태생적인 특성 때문에 국가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해림(2014)에 따르면 제3국 출신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상당수가 ADHD 증후군을 보였으며 가족 구성원간의 다른 국적에서 오는 갈등과 심리적응 문제도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자녀와 중국 출신 아버지가 겪는 문화적 갈등과 경제적 어려움 등은 제3국 출신 자녀들의 올바른 국가 정체성 형성에 곤란을 주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해서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가지는 국가정체성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특히 제3국 출생 북한이탈학생들이 한국 사회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이 가지는 국가정체성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을 주된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본 연구는 소수자의 권익신장을 넘어 단일국가 기반의 애국적인 시민교육을 강요해온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에 대한 반성을 요청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 시민교육의 목표가 훨씬 더 포용적으로 나아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문제

제3국 출생 북한이탈학생에게 국가정체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제3국 출생 북한이탈학생이 가지는 국가정체성의 특징은 무엇인가?
- 제3국 출생 북한이탈학생이 가지는 국가정체성의 특징이 학교 시민사회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남한사회적응

(1)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개념과 현황

전혜림(2014)은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란 부모가 모두 북한 출신이거나 부모 중 한명이 북한출신이고, 북한이 아닌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아이라고 정의하였고, 탈북청소년과 관련된 개념을 북한이탈청소년, 탈북청소년, 새터민청소년, 탈북학생, 비보호청소년, 이주배경청소년으로 정리하였다. 이 중 ‘비보호 청소년’이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와 가장 유사한 개념이다.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들은 위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통일부의 ‘보호대상자’에 속하지 않는다. 법률의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이들을 가리키는 정확한 명칭 또한 없어서 김정림·차현지(2012)와 김윤나(2014)는 ‘비보호 청소년’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쓰고 있다.

김윤나(2014)는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어려움을 정체성의 혼란과 법적 지원의 한계라고 하였고, 법적 테두리에서 ‘보호’를 받는지의 여부는 근본적으로 중국에서 어떻게 태어나 어떤 경험을 하는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북한이탈여성이 중국내에서 합법적으로 혼인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를 출생할 경우, 위조 호구를 만들어 한족학교 또는 조선족학교에 진학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으며 그들의 부모처럼 신분을 숨겨야 한다. 이는 중국에서 태어나 중국어만 구사 할 줄 알거나 한글 문맹으로

이어져 남한에 정착한 후 중국 사람도, 북한 사람도, 남한 사람도 아닌 국가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북한이탈 청소년보다 남한의 언어와 문화에 적응 하는 것을 더욱 어려워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그 이유가 일반 탈북청소년은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라 한국말에 익숙한 반면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제3국에서 출생하였기 때문에 한국말의 경험이 부족하고, 더 나아가 남한사회 적응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김정림·차현지 2012). 이는 비보호 청소년이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다문화 가정 자녀의 속성도 가지기 때문이다.

(2)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사회적응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도 일반 탈북청소년이나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처럼 남한사회에서 새로이 사회화를 겪으면서 적응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한국 국적만 주어질 뿐 ‘보호대상자’로써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한국말도 서투른 상황에서 질풍노도의 시기인 청소년기에 타문화에 적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일반 탈북청소년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상황에 놓인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가정이 일반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가장 다른 점은 가족 구성원의 국적에 있다. 전해림(2014)은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제도적 지원에서 제외되어 가족의 경제적 시작점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불리한 위치에 있으며, 이는 가족 구성의 심리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가정 내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임에도 현행법 상 도와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불평등

을 겪고 있다. 김정림·차현지(2012)는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사실상의 탈북자임’이 입증되면 귀화절차와 별도의 심사를 통해 국적을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법적 제도가 마련된다면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일반 탈북청소년과 동일하게 경제적 지원, 학력인정, 대학 진학 혜택, 대학등록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 중국에서 출생하는 이들은 부모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 때문에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출생하자마자 불안정한 가정환경 내에서 불법체류신분으로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다양한 심리적 충격을 경험한다(문지영, 2013).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배경들을 통해 남한 사람들로 부터 느끼는 사회적 편견이 크다는 것과 문화적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별도의 적응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도 일반 북한이탈주민 자녀와 동등한 지원과 교육이 필요하다.

(3)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학교교육

일반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남한에 입국 후 3개월 동안 하나원에서 지낸다. 북한에서의 학력을 인정받아 초등학생은 하나원 주변의 초등학교에 다니게 되고 중고등학생은 하나원 내의 하나둘학교에서 학업을 이어간다.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중 탈북한 부모와 동반 입국 할 경우 학력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부모와 함께 하나원 생활을 하면서 하나원 주변의 초등학교를 거쳐 갈 수 있기 때문에 학력인정이나 편입학에 큰 어려움이 없지만, 부모가 먼저 입국하고 후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학력인정을 받기가 어렵다(김신희, 2014). 그래서 대부분의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탈

북청소년을 위한 비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면서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대학진학 시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수능을 준비한다.

<표 1> 탈북청소년과 제3국 출신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구분에 따른 차이

구분	탈북청소년	제3국 출신 북한이탈주민 자녀
개념	북한이탈주민 중 청소년 연령 (탈북학생 포함)	부모 중 한명이 북한이탈주민으로 중국에서 태어나 국내학교에 재학
통일부의 보호결정	보호	비보호
정착금 지급	지원	미지급
특례입학	가능	북한이탈주민 전형에 지원 불가능
학비지원	가능	당사자 해당 없음

※출처 : 김윤나, “제3국 출생 비보호 탈북청소년의 인권 지원 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연구”, 2014, p.10 참조

2.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의 국가정체성

(1) 국가정체성의 개념과 유형

국가정체성의 개념은 개인 수준의 국가정체성과 국가 단위의 국가정체성으로 나눌 수 있다. 개인 수준에서의 국가정체성은 미시적 관점에서 바라본 것으로 국가정체성(National Identity)을 특정 국가(국민)와 연관하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beliefs)과 감정(feelings)이며 사회정체성(Social Identity)의 한 형태라 하였다(Wiggins, Wiggins and Zanden, 1994: 정기선·

이선미(2011), p.48 에서 재인용). 예를 들어 어느 특정 국가의 국민들이 어떤 특성을 갖는다고 가정한다면, 이는 특정 국가(국민)를 대상으로 형성된 고정관념 또는 일종의 신념으로서 국가정체성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Evans와 Kelley(2002)는 국가에 대한 감정(sentiment), 즉 자긍심(national pride)과 애착(attachment), 소속과 충성심, 그리고 우월감(superiority)의 강도를 통해 국가정체성을 설명하였다(Evans and Kelley, 2002; 정기선·이선미(2011), p.49 에서 재인용). 김신희(2014)는 국가정체성이란 국민 개개인이 자신이 속한 국가에 대한 자부심과 소속감이며, 긍정적으로 형성된 국가정체성은 국민들 간의 화합에 기여하고 애국심과 충성심을 기르게 하여 나라의 발전과 존속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국가 단위의 국가정체성은 한 국가 구성원들이 ‘국민임(nationhood)’에 대하여 스스로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방식, 혹은 누가 국민인가를 규정하는 자기 인식으로 정의한다(Brubaker, 1992: 전우택·유시은·이연우(2011), p.3 에서 재인용). 이에 따라 ‘국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자격 요건 및 강조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국가정체성의 성격이 규정된다.

또한, 국가정체성을 고정된 실재로 보느냐, 아니면 환경에 따라 변하는 동적인 개념으로 보느냐에 따라 실증주의적 관점과 구성주의적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

실증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본 국가정체성은 변하지 않는 고정된 정체성으로 공통의 문화적, 역사적 배경으로 부터 형성된다. 이러한 관점은 개인들이 공유하는 동질적이고 본질적인 국가정체성의 의미를 규명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강봉구 외, 2010: 김유민(2014), p.19 에서 재인용).

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국가정체성은 그 정체성을 가지는 주체와 주변의 존재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소통을 통하여 재구성 된다. 한 나라 안에서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양한 국가정체성이 있을 수 있다는 구성주의 관점이 현

재에 나타나는 국가정체성을 설명하는 데에 보다 더 적합하다(강봉구 외, 2010: 김유민(2014), p.19 에서 재인용).

구성주의적 관점의 국가정체성은 다양한 국가정체성을 인정하는데, 국가구성원의 요건으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 지에 따라 종족형, 시민형, 혼합형, 다원형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Hochman, 2008: 송영호(2011), p.152 에서 재인용). 종족형은 국가구성원의 요건으로서 개인에게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유전적 형질의 동일성을 중요시 한다. 이러한 국가는 국가·민족·문화 정체성이 거의 유사하다. 또한 타민족, 타문화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를 가진다. 시민형에서 중요한 국가구성원의 요건은 정치적, 법적 지위이다. 다른 문화정체성을 가진 이주민이라도 일정한 지역에 오래 거주하여 원주민과 동등한 정치적·법적 지위를 획득하면 같은 국가구성원으로 인정한다(Smith, 2001: 김유민(2014), p.23 에서 재인용). 이 두 가지 유형은 종족적 요인과 시민적 요인의 경계가 모호하고 국가정체성을 전체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며 개인적 수준에서 인식하는 국가정체성의 의미는 포함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Heath & Tilly, 2005: 김유민(2014), p.24 에서 재인용). 혼합형은 종족적·시민적 요인을 모두 강조하기 때문에 국민자격요건을 엄격하게 요구하지만, 다원형은 위의 세 가지 유형과 다르게 종족적 요인이든, 시민적 요인이든 강조하지 않고 있다(Hjerm, 1998: 김유민(2014), p.25 에서 재인용)

(2) 북한이탈주민의 국가정체성

북한이탈주민은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북한에서는 ‘국민’이었고, 경제적·정치적인 이유로 북한을 이탈하여 제3국에 머무르면서 ‘난민’이나 ‘이주민’이었다. 그리고 남한으로 입국하여 새로운 국적을 취득한 ‘국민’이 되어 국가정체성이 복합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보여진다(전우택·유시은·이연우, 2011; 최

대석·조은희, 2010). 이러한 복합적으로 형성된 국가정체성의 배경으로는 이산경험과 경계경험을 들 수 있다. 김유정(2012)은 ‘북한이탈 청소년의 이산경험은 무엇인가?’ 라는 연구 질문에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정치·경제적인 이유로 겪게 되는 이산의 과정을 6가지로 세분화 하였다. 첫째, <산산이 쪼개진 가족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기>의 가족해체 둘째, <헤어진 어머니를 찾아가고자 고향 등지기>의 탈북과정 셋째, <살기위해 떠돌아 다니기>의 제3국에서의 도피생활 넷째, <다시 이룬 가족으로 새롭게 적응하기>의 가족의 재결합 다섯째, <낯선 곳에서 자리 잡아가기>의 남한에서의 새로운 출발 여섯째, <현실을 수용하며 뿌리내릴 준비하기>의 남한사회에서의 뿌리내리기 이다. 위 6가지 세분화된 이산의 경험은 탈북 청소년들이 남한에서 형성하는 정체성에 영향을 준다. 이산경험 과정 내에서 동반되는 경계경험에 대해 조정아(2014)는 탈북 청소년들이 남한사회에서 갖는 정체성의 과정은 남한 사회의 질서에 무조건 따르며 동화되는 과정이 아닌 남한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경계들에 부딪히고 이를 극복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이 부딪히는 경계는 타인과 자신을 구별 짓는 것으로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탈북 청소년들이 북한을 탈출하며 경험하는 다양한 영토적 경계 경험과 사회문화적 경계경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산경험과 경계경험은 단순히 이들 개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 정체성 형성의 과정에서도 의미 있게 적용 될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북한이탈 대학생들이 북한, 중국, 남한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된 국가정체성에 대한 연구가 있다. 최대석·조은희(2010)는 탈북대학생이 경험하였던 북한, 중국, 남한 거주 당시의 국가정체성을 국가에 대한 이미지로 정의내리고 다음과 같이 규명하였다. 북한에서의 국가정체성은 철저한 사상교육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가에 대해 명확하고 긍정적인

성격이었다. 중국에서는 체류당시 북한에서 형성했던 국가정체성이 허상이었음을 자각하고 국가는 최소한의 경제적인 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남한에서는 대한민국의 국민인 법적 지위를 얻었음에도 남한사람들에 의해 지위 인정의 철회를 겪으면서 긍정적 국가정체성 형성이 어렵다고 하였다. 이는 탈북대학생은 자신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여기지만 남한사회는 이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탈북청소년의 국가정체성을 연구한 김신희(2014)의 결과와 유사하다. 김신희(2014)는 대한민국사회가 다양함에 대한 포용력 부족, 자기계발이나 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성취욕구, 북한에 대한 적개심을 탈북청소년에게 투사하는 남한청소년, 출신국가가 북한이라는 뿌리인식 등의 이유로 대한민국에 통합되지 못한 탈북청소년은 남한에 대한 국가정체성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더 나아가 한국을 떠나고 싶어 한다고 하였다.

위의 북한이탈주민의 국가정체성 형성에 대한 연구를 살펴본 결과,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사회의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유형의 국가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전우택·유시은·이연우(2011)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형성하는 국가정체성 유형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이 높음과 동시에 북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거부하지 않는 ‘고향이 북한인 한국사람’이다. 둘째로, 한국 사람임은 인정하지만 북한출신이어서 차별받는다 고 생각하는 ‘북한 출신 한국 국적자’이다. 셋째로, 북한적 정체성을 강하게 거부하고 한국 국적자임을 강조하는 ‘탈북한 한국 국적자’이다. 넷째로, 국가정체성이 약화되어 있는 ‘탈국가적 개인주의자’이다. 네 번째 유형은 개인주의나 다른 집단적 정체성이 원래의 약화된 국가정체성의 자리를 대신한다고 보았다.

3. 본 연구에 대한 시사점

앞서 검토한 선행연구 분석결과에 기초해 볼 때 본 연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들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첫째,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대부분 한국어를 구사할 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업에서의 어려움, 검정고시의 부담감, 익숙하지 않은 남한 문화 등으로 일반 탈북청소년들보다 더 큰 소외를 겪으며 남한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같은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하더라도 제3국 출생이라는 이유 때문에 국적획득, 학력인정, 대학진학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남한사회적응과 본인의 자아실현에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음을 관련연구를 통해서 확인하였다.

셋째,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에게서 국가정체성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국가정체성에 대해 선행되었던 설문조사연구는 국가정체성이 어떻게 구성되며 재정립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밝히지 못하였다. 또한 이들의 국가정체성이 어떻게 변해가는 지에 관한 연구는 아직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정체성을 개인이 국가에 대해 가지는 감정(Evans와 Kelley 2002: 정기선·이선미(2011), p.49에서 재인용)과 그 나라의 국민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자기 인식(Brubaker, 1992: 전우택·유시은·이연우(2011), p.3에서 재인용) 등을 모두 포함하는 통합적인 국가정체성으로 정의하여 제3국 출생 탈북학생들이 가지는 국가정체성을 분석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 제3국 출생 탈북학생들의 국가정체성에 관한 설문조사연구 중심의 한계점들을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대안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기존의 시민교육에서 제시된 국가의 개

념과 국가정체성에 관한 내용이 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국가의 개념 및 국가정체성과 어떠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경계선에 있는 제3국 출생 탈북학생들을 위한 바람직한 국가관이나 국가정체성 교육방법에 대한 방안을 이 연구를 통해 탐색할 수 있다.

Ⅲ. 연구 방법론

1. 연구 방법의 특징

본 연구는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이 가지는 국가정체성을 알아보기 위한 질적 연구이다. 질적 연구는 연구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연구 대상자의 맥락에서 이해한 연구결과를 얻으며, 심층적 이해와 의미 있는 자료를 얻기 위해 연구대상자를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관찰하거나 연구대상자와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 양적 연구에서처럼 정해진 방식의 자료 수집이 아니라 현상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집한다는 점에서 총체적 성격을 가진다. 총체적으로 수집된 자료들을 분석하면서 보완해야 할 사항, 새로운 문제들이 발견될 시 이를 간과하지 않는다. 또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일반화를 추구하는 양적 연구와 달리 질적 연구는 연구 상황에 맞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적이다. 인간 사회의 현상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러한 질적 연구의 특징들 때문에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김민영, 2008).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반-구조화된 면담 방식을 사용한 심층 면담 기법을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통해 제3국 출생 북한이탈자녀들이 가지는 국가정체성과 남북한에 대한 주관적 관점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2014년 11월부터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자가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에 관한 논문을 써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무엇에 관해 연구해야하는지 고민을 하던 중에 대략 15년 전부터 탈북자들을 구출하는데 헌신하며 S시 빛물학교(가명) 교장선생님이자 선교사인 한 분을 만나게 되었다. 그 분은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자녀가 남한 입국 후 무국적 상태로 지

내면서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서 말해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으로 논문을 쓰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해 주면서 빛물학교에서 심층면담 및 참여관찰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제3국 출생 북한이탈자녀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 무엇을 연구해야하는지 또다시 고민을 하던 중에 빛물학교 교사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교사들이 말하기를 현재 빛물학교에 있는 중국에서 출생한 탈북학생들은 모두 한국과 중국의 국적을 모두 가진 이중 국적자이며 그 학생들은 만 22세가 되기 전에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데 자신이 어느 나라 국민인지 자신의 국가정체성을 혼란스러워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연구자는 교사들과의 대화를 나눈 후 지도교수와의 면담을 통해 본 연구의 주제를 정하게 되었다.

2. 연구 참여자의 선정

연구자는 인터넷 중독 청소년을 대상으로 캠프 및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재단에서 일하고 있는데 탈북청소년을 위한 캠프를 운영하고자 정보수집 및 시설을 확충하는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탈북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특성상 연구 대상자를 섭외하는 것이 어렵지만 재단의 이사장이 소개한 빛물학교 교장선생님이자 선교사이신 분의 도움으로 빛물학교에 접근이 용이하였다.

빛물학교는 2009년 10월 탈북청소년의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설립된 비인가 대안학교이다. 초등, 중등, 고등과정의 3단계 교육과정으로 국민기본공통 과목 외 다양한 예체능 과정, 특성화 교육과정, 방과 후 학교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재학 중인 학생 수는 약 30명 정도이고 22명의 교사가 학생들과 함께 한다.

연구 참여자는 의도적 표집방법을 사용하여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 선정의 기준은 1)어머니의 국적이 북한이었던 자 2)아버지의 국적이 중국인 자 3)중국에서 출생한 자 4)현재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국국적과 중국국적을 가진 이중 국적자 5)14세부터 19세 사이의 청소년 6)본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이다. 위의 기준에 적합한 학생을 빛물학교에서 만날 수 있었다.

3. 연구 자료의 수집과 분석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의 일반적인 과정에 따라 연구 설계, 코딩(약호화), 주제의 범주화, 자료의 분석, 주요 발견 주제 제시 등으로 진행하였다.

6명의 학생들과의 연구는 2015년 3월부터 시행하였다. 6명의 학생들은 모두 빛물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어서 주로 주말에 학교에서 개별 면담을 하였다. 면담 내용은 학생들의 동의하에 녹음을 하였으며, 면담내용은 현장 노트에 메모하며 진행 하였다. 1차면담 후 2주일 후에 2차면담까지 시행하였으며, 각 면담은 참여자의 집중도를 고려하여 1시간 내외로 계획하였다. 면담시행 후 반성일지를 작성하였다.

빛물학교에 제3국 출생 북한이탈자녀는 15명이 있었고, 아래의 6명의 학생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은 <표 2>에 소개되어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나이와 남한생활기간 모두 비교적 비슷하다.

<표 2> 연구 참여자 프로필

이름(나이)	입국 년도	출생 국가	비고
민화 (16)	2012	중국	아버지는 조선족이며 현재 돌아가심 어릴 때 조선족 학교 몇 달 다닌 후 한족학교 다니다가 입국
경원 (17)	2013		아버지가 조선족이어서 어릴 때 잠깐 조선족학교 다님 4식구 모두 남한에 정착
다슬 (14)	2012		조선족학교 잠깐 다녔으나 한국말 전혀 할 줄 몰랐음
나영 (16)	2014		남한에 입국한지 6개월이 안됨 한국말을 거의 못함
경화 (17)	2013		한국어 서툴러서 입학, 중국에서 조선족학교 다니다가 입국, 아버지는 조선족,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음
민숙 (14)	2007		남한에 입국한지 8년째여서 한국말이 매우 능숙한 반면 중국어는 다 잊어버림

연구자는 위의 6명의 탈북학생들을 대상으로 2단계의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1단계 면담은 연구 참여자의 생애사 및 연구 문제에 관한 기초정보를 묻고, 2단계 면담은 1단계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정체성 관련 질문으로 구성 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의 사회교과수업을 4회 관찰 하였다.

심층면담자료, 연구자의 현장노트, 반성적일지를 자료 분석의 주요 원천으로 삼았다. 녹음된 면담내용은 일차적으로 모두 한글파일로 전사하였다. 연구자는 이 세 가지 자료로 1차 코딩을 실시하고 개방형으로 이루어진 1차 코딩을 바탕으로 위계 구조를 구성하는 2차 코딩 후 이는 다시 주요 주제를 형성 하였다.

연구자는 수집된 자료의 분석 결과를 연구 참여자에게 재확인 받는 연구 참여자의 자료검토와 본 연구 주제에 대한 전문가의 관련 자료검토 방법을 활용하여 자료 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표 3> 국가정체성 관련 개념의 범주화

상위범주	하위범주
남한 입국 동기	경제적 어려움, 가족과의 재회
국가정체성 혼란	제3국(중국)거주 경험, 남한 거주 경험
남한 사회 체험	대안학교경험, 남한문화노출, 제도적 지원, 교육혜택
국민자격요건	출생지, 거주지, 한국어 구사능력, 한국인이라는 느낌
새로운 국가정체성	남한사람, 북한사람, 중국사람

IV. 빛물학교의 학교 교육 또는 특징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경우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와 중국국적의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중국 출생의 북한이탈 주민이다. 이들의 경우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중국내 불안정한 지위로 인하여 중국내에서도 정식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였거나 또는 중국의 교육제도에 익숙해진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한국으로 부모님을 따라 입국하게 된 경우가 대다수 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들은 한국의 제도권 교육에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또는 북한이탈주민 혜택을 받지 못해 사회단체나 비영리재단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에 입학하여 학업을 이어나가게 된다.

본 장에서는 본 연구가 이루어진 빛물학교가 가지는 독특한 특징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의 국가정체성을 살펴보는데 중요한 바탕이 될 것이다.

1. 검정고시 중심의 수업

현재 우리나라에 많은 수의 대안학교는 비인가 대안학교여서 대안학교가 제공하는 교과과정을 모두 이수하였더라도 일반 상급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는 검정고시를 통해 그 자격을 인정받아야만 한다. 학생들이 교과과정을 마치고 다음 단계로 올라갈 경우 검정고시를 통하여 학력을 인정받게 된다. 특히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경우 일반학교를 다니다 언어장벽 이나 제도권교육 부적응으로 대안학교로 전학을 오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연구자가 방문하고 인터뷰한 빛물학교는 일반탈북청소년과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들이 남한사회와 문화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교이다.

이 빛물학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검정고시 대비 위주의 교과과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일반탈북청소년들과는 다르게 이들은 중국 국적자로 중국 학교를 다니는 중도에 한국에 입국을 하였기 때문에 대다수의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경우, 일반학교 또는 검정고시를 통해 중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하게 된다. 빛물학교의 경우 비인가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교과교육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이 청소년들이 향후에 대학에 진학하거나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 검정고시의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검정고시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즉 빛물학교는 한국의 제도권 교육에 언어장벽 또는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대입기회를 얻지 못하는 탈북청소년들이 검정고시 합격을 통하여 기회를 얻게 해주는 것을 학교 운영의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빛물학교는 오전 검정고시를 위한 교과수업과 오후 예체능 수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중등반에서는 중입 검정고시, 고등반에서는 고입 검정고시를 공부한다. 연구자가 빛물학교를 방문 했을 때에는 대입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 검정고시는 일 년에 두 번 시행하고 있는데 2015년도는 4월 13일이 첫 번째 검정일이였다. 그래서인지 연구자가 빛물학교에 방문한 기간 중 특히 3월 말부터 4월 초는 검정고시를 위해 모두가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이였다. 고등반 아이들은 8월로 예정되어 있는 검정고시를 목표로 공부하고 있었다. 4회의 수업참관을 통해 연구자가 관찰했던 것은 검정고시 합격을 위한 문제풀이 위주의 주입식 교육이였다.

<사회과 수업의 한 장면>

선생님: 이거 보니까 검정고시에 잘 나오는 것, 호폐법이랑 세종. 그치?

학생들: 네

선생님: 잘 기억하고.. 검정고시가 얼마 안 남아서 시험문제 자주 나오는

것 위주로 하는데.. 시험 끝나면 조금 더 자세히 알려줄게.. 일단 이것만 외워 이거 한 장만...

학생들 : 네

위의 사회과 수업의 한 장면과 같이 빛물학교의 수업은 검정고시 위주의 문제풀이로 진행이 되며 선생님들도 검정고시 문제풀이를 중점으로 수업을 준비하여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다.

빛물학교에 있는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들은 처음에는 부모의 권유로 이 학교에 왔지만 현재는 스스로의 결정으로 다니고 있다. 일반학교에서 따라가지 못하는 한국어 공백을 메꾸고 차근차근히 대학교 입학에 위한 학력 조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과 동시에 남한사회의 적응을 목표로 삼고 있다. 아래 민화와의 심층면담은 빛물학교 학생들이 검정고시 공부를 대학교 입학의 조건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맞추어 공부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자: 너에게 이런 시험이 어떤 느낌이야?

민 화: 음.. 검정고시 안보면 대학교 못 가잖아요 대학교 못가면 직업 못 찾잖아요. 그러면 나이 들수록 직업 못 찾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학교 가도되고 안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일반학교 가기 싫어요. 왜냐하면 나이대로 올라가면 못 따라 갈 수도 있고 막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여기서 검정고시 보고 대학 교도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검정고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봐야 되잖아요. 그거 생각하면은 참... 대학교 참 엄청 멀구나 생각하는데 초등학교 먼저 땀어요. 조금 가까워지고 8월 달에 또 중학교 보면은 또 조금 가까워지고.. 그런데 만약에 떨어지면 아이 떨어졌다 다시 공부하고 또 올라가고 올라가면서 그런 거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저 한글도 많이 늘

있고 한국사회도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고 예전에는 한국사회도 모르고 배우면서 한국 학생처럼 똑같이 대학교 가서 공부하고 한국 사람들이랑 같이 친하고 친구처럼 사귀고.. 보편은 사회 적응하는 계단 같아요. 검정고시. 한국친구들 점점 가까워지잖아요. 왜냐면 여기는 다 중국친구들 북한친구들이잖아요 그런데 대학교 가면 다 한국친구들이잖아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대학교 가고 일반학교 친구들 만나는 계단?

이렇듯, 현재 아이들은 검정고시를 합격하는 것만이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회에 적응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빛물학교는 비인가 대안학교로써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지만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검정고시위주의 수업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성과의 지표로 사용한다. 사회선생님과 인터뷰를 통하여 검정고시 위주의 교육을 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사회 선생님: 일단 남한에서 살려면 고등학교 졸업은 해야 하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애네 들만 그런 게 아니라 남한사람들도 대학은 나와야지 고등학교는 졸업해야지 그런 게 있잖아요. 여기가 인가받은 학교였으면 그런 걱정이 애들한테도 없고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없었을 텐데 일단 인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애들이 검정고시를 봐야 하잖아요. 남한에서 살아가려면 그런 거를 무시 못 하잖아요. 초졸로 살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애네들이 남한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인식의 변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한쪽 면에서는 학업적인 면도 무시할 수 없으

니까 검정고시를 봐야하는... 나이가 많이 됐는데 초졸도 안된 애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조금하게 한 부분도 있죠.

위 선생님과의 면담에서 알 수 있듯이 비인가 대안학교가 가지는 한계로 인하여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 검정고시 준비를 중점으로 교육을 진행하게 되고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학력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검정고시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빛물학교의 검정고시 위주의 교육은 아이들에게 남한사회 구성원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어 중요하다. 하지만 검정고시 위주의 문제풀이식 수업과 단순한 지식전달의 주입식 교육은 학생들이 자아형성과 미래를 위한 적성을 찾는 데 어려움을 주는 문제점을 갖는다. 사회선생님 또한 이러한 빛물학교의 한계점에 대해 통감하고 있고 빛물학교 이후의 아이들을 걱정하고 있었다.

사회선생님: 그런데 한계를 많이 느끼고 그래요. 검정고시가 다가 아니니까.. 일단 한글도 모르고 기본적인 언어도 부족하고 대학을 가거나 사회를 나가야 하는데 잘 적응을 할 수 있을까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고민을 해요.. 여기 학교가 다가 아니니까...여기를 벗어나서 살아야 할 텐데.. 공부도 잘 따라갈 수 있을까.. 다른 애들이랑 잘 따라갈 수 있을까... 큰 고민이에요...

빛물학교 선생님들의 걱정은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사회에 나갔을 때 이 학생들이 잘 적응 할 수 있을지 여부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우리나라 사회에 녹아들어 한국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전반적인 염려가 있었다.

연구자가 사회수업관찰을 하며 확인한 것은 사회교과 안에서의 추상적인

개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일어나기 어려웠고 지식의 습득이 단편적으로 이루어 졌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학생들이 다양하고 비판적인 사고의 형성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

2. 나이보다 훨씬 뒤쳐진 학업수준

빛물학교 학생들의 경우 본인의 연령대의 교과과정이 아닌 학생 개인의 수준별 맞춤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10대 초반에 한국에 입국하여 제도권 교육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대안학교로 전학을 오는 경우가 많다. 이는 언어장벽과 학교생활 부적응이 주된 이유이다. 특히 일반 제도권 학교의 경우 한국어 구사능력이 부족한 외국인을 위해 특별히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국어만 사용하는 학생들이 일반 학교에 적응하고 교과내용을 단기간에 따라가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빛물학교 학생들은 처음 학교에 입학하면 한글교실과정을 이수한 후 일반 교과과정수업을 받게 되고 대다수의 학생들은 자신의 연령대에 맞는 수업이 아닌 그보다 뒤쳐진 수업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연구자가 면담을 진행한 6명중에서 민숙³⁾이를 제외한 5명의 아이들의 공통점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첫째로, 아이들 모두 중국에서 학교를 다니다 왔지만, 남한 입국 후 중국에서의 학력을 정식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이다. 현재 제 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자녀의 경우 중국에서 어머니의 불확실한 신분으로 인하여 위조된 호구증으로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남한 입국 후 중국에서의 학력을 증명하기 어렵다.

3) 민숙이는 6살에 남한에 입국하여 8년간 생활해 왔고 중국학교를 다닌 경험이 없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학력을 인정받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연구자: 아이들이 나이에 비해서 학력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생님: 학력이요? 음.... 15살 16살에 들어왔으니까... 아니면 중국에서 학교
를 다니고 오면 초등학교를 졸업했다는 게 인정이 되면 된대요.
그런데 그 과정이 많이 복잡하고 기간도 길고 그렇대요.. 어차피
애네 들이 여기서 중졸 고졸을 할 거면 기초부터 공부를 해야 하
니까 중국에서 다닌 거를 인정받는 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많이
힘드니까 그냥 중입 부터 하는 것 같더라고요.... 중국에서 다닌 거
를 인정받으면 고졸부터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고졸하면 너무 어렵
잖아요. 그러니까....

위의 선생님과과의 면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이들이 학력을 인정받는 과정
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또래보다 뒤처지더라도 기초부터 공
부를 다시 하게 된다.

둘째로, 학력을 인정받더라도 아이들은 언어 문제로 인해 일반학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고 학업에 뒤처진다. 특히 제 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대체로 13세부터 16세에 우리나라에 어머니를 쫓아 입국하게 되는데, 중국 체
류 시 중국어만 사용하던 아이들이 우리말만 사용하는 학교에 편입한다 하더
라도 한국어로 진행되는 수업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어
한글 교육부터 제공해주는 빛물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민화와의 심층면담에서
는 한국어로 공부하는 어려움을 잘 보여준다. 특히 민화를 통해서 한글을 배
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자신의 나이대의 학생들에 비해 뒤처진 공부를 하는 것
에 스트레스를 받는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민 화: 사실 처음에 한국말 올면서 배웠어요. 스트레스 받고 수업도
안되고.. 아 나는 언제 내 나이대로 공부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엄청 힘들었어요. 어른들 아 머리 아프다 하잖아요. 아 얼마나 아픈 거지? 했는데 한국말 배우면서 정말 머리 아팠어요. 하루 종일 한글 하니까 머리 막 아프고 짜증나고 조금 안되고 울고 그러니까.. 지금은 뭐 괜찮아요. 말 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예전보다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민화와의 심층면담에서와 같이 나이는 십대 중반인데 한글을 몰라 초등학교 과정부터 공부를 해야 하니 아이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다. 또한, 중입 검정고시 뒤로 고입, 대입 검정고시가 기다리고 있고 대학의 문턱도 넘어야 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아이들이 짊어진 학업에 대한 무게는 상당하다 할 수 있겠다.

한국어 공부를 시작으로 대학입학이라는 긴 여정을 헤쳐 나가면서 아이들은 반복되는 시험과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자기주도적인 학습의 동기부여가 긍정적으로 형성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를 무리하게 강요했을 때는 자존감에 상처를 줄 수도 있다.

또한, 나이보다 어린 학년으로 배정받아서 일반 학교를 다닐 경우 육체적 정신적 성장수준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받기 어렵고 다른 친구들과 나이가 맞지 않아서 또래집단에 소속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3. 상처받은 아이들

빛물학교 학생들과의 심층면담을 진행하는 중 친구들에 관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학생들 끼리 자신들의 상처를 공유하며 친해지고 어울린다는 말을 들었다.

연구자 : 친구들하고 뭐하고 놀아?

민 화 : 흠 여기 친구들은 다들 상처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얘기 하고 가까운데 나가서 놀고 자주 얘기해요. 나는 이것 때문에 힘들고 중국에서 어떻게 지냈고 뭐 그런 거 많이 해요 아니면 그냥 하루 종일 학교에서 웃긴 거 뭐 그런 거 얘기하고....

학생 스스로 상처가 있다고 말한 부분은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으로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었고, 학생들과의 심화 인터뷰를 통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들을 몇 가지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로, 어머니와의 소통의 단절을 들 수 있다. 부모의 손길이 가장 필요한 시기의 아이들은 말이 통하지 않는 어머니와 대화를 할 수 없어 상처를 받고 자신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는 어머니의 강요로 정서적인 갈등을 겪는다. 아래 인터뷰들은 다슬이와 경화가 겪었던 어머니와의 소통의 부재와 갈등을 보여준다.

연구자: 그런데 한국말을 다들 빨리 배우는 거 같아?

다 슬: 중국에서 엄마가 한국말만 하니까요 말이 안 통했어요. 그냥 말 안 하고 엄마가 뭐라고 하는데 그냥 엄마랑 자주 얘기는 못 한 거 같아요. 아빠랑 자주 얘기 했죠

연구자: 그러면 엄마랑 얘기를 많이 못 해 봤겠다.

다 슬: 네 못 했어요 한국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엄마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연구자: 지금껏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거나 속상했던 때 있어?

경 화 : 있어요... 저는 옛날부터 자살하려고 한 적 몇 번 있었어요....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어릴 때 6살 7살 때요 나는

놀고 싶은 나이인데 엄마가 매일 뽀뽀하게 공부시키는 거예요.
어느 날 너무 힘들어가지고 공부 안 했어요. 그래서 막 때
리고.. 그래서 약 먹었어요. 며칠 동안 잤대요... 그때는 너무
상처받아가지고 우리 엄마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구나
했어요... 엄마랑 싸워가지고 또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
데 죽으라고 그래서 죽을 거라고 하고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근데 구했어요. 엄마가 경찰에도 신고하고 조금만 더 가면
죽을 뻔 했어요. 엄마가 너무 미워가지고...

북한이탈자 신분의 어머니를 둔 아이들은 중국어 구사에 어려움이 있는 어
머니와 우리말을 배우기전까지 대화를 할 수 없어 생긴 언어적 교감의 부재와
북한출신 어머니와 중국태생 아이의 환경과 문화의 차이로 인한 정서적 교감
의 어려움이 있어 아이들이 이런 어머니와의 소통의 부재를 상처라고 생각한
다.

둘째로, 북한이탈자 신분의 어머니로 인하여 중국내에서 겪어야 했던 차별
과 강제송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상처가 있다.

연구자: 왜 안돌아가고 싶었어?

경 화 : 왜냐면요 친척이 없어요. 중국에서 아빠 쪽이 친척 많은데
요 어릴 때부터 우리 집 안 좋아했어요. 왜냐면 엄마가 북
한사람이라 서요. 아빠도 공부 많이 못 했어요 계속 혼자
살다가 우리 엄마 만나서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우리엄마 안 좋아해요. 싫어해요. 우리 엄마도 잘 할 수 있
는데... 계속 우리 집에서 뒤에서 욕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친척들 안 믿거든요.

민 화 : 한국은 자유롭게 살 수 있고 경찰 때문에 피해 다니지 않아

도 되고... 그런데 한국 오니까요 중국에서는 경찰들 무섭
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경찰들 보면 무섭고 피하고 싶어
요. 도망가고 싶고요. 항상 친구들이랑 나가서 놀 때 경찰차
가 앞에 있으면 막 뛰어요. 무서워요. 그래도 요즘 들어서는
괜찮아졌어요.

경화는 북한 출신 어머니를 둔 것에 대해 차별받아온 상처로 친척을 포함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었다. 민화는 경찰을 보면 불안해하는 자신을 설
명하며 중국에서 경험했던 강제송환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 했다. 위의 심층
면담과 같이 아이들은 중국에서 경험했던 차별과 강제송환의 불안함을 상처라
고 이야기 했고, 지금도 자신들이 경험한 힘들었던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다.

셋째로, 아이들이 남한에 들어와 경험한 문화적 차이와 사회적 편견에 의한
상처를 들 수 있다. 다슬이와의 심층면담은 남한에서 경험했던 차이와 편견에
대한 상처를 잘 나타내고 있다.

연구자: 아 그럼 초등학교 갔었구나? 바로 갔었어? 음 그때 한국말
잘 안 됐을 거 아니야?

다 슬 : 그때 어떤 엄마가 어디서 썸을 구해서요. 저를 집에서 좀 가
르쳤어요. 가나다라 그런 거 가르쳤었는데 저는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집중이 안 되고 하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
려웠어요. 아 하기 싫다 다시 중국으로 돌아갈까? 생각을 했
죠 ... 일반학교에 갔는데 일반학교에 가서 애들이랑 얘기를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자리에 앉으면 공부만
이렇게 책만 읽고 얘기도 안하고 그랬어요. 수업시간에만 들
고 그냥 자리에만. 일어나 본 적 없었던 것 같아요 밥 먹을
때 나가서 먹고 다른 때는 놀 때 장난칠 때 그냥 가만히 앉

아있었죠.

연구자: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지는 않으셨어? 담임선생님이?

다 슬 : 담임 쌤은 그냥... 저 숙제를 한국말이 안 되니까 어떤 언니 찾아가서 같이 하고 그랬죠. 숙제를 다 해서 가서 내면 선생님이 어 잘했어 그냥 칭찬하고. 별로 쌤들은 도와주지 않았어요.

다슬이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북한이탈주민과 그들의 자녀들에 대한 편견이 아직 사회 전반에 남아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일반학교에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없어 아이들에게 학교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게 되는 계기 또는 상처가 된다.

앞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 입국하기까지 다른 환경에서 살던 아이들은 각기 다른 상처들을 조금씩이라도 안고 살아가고 있다. 또한 이러한 상처들을 조금만 깊게 살펴보면 그 원인은 매우 유사한 부분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상처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남한에 들어온 이후까지 꼬리표처럼 따라온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어머니의 환경적 사회적 배경을 들 수 있다.

V.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국가정체성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국가적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학교시민교육을 고수해왔다(심우엽, 2009). 그러나 우리사회가 세계화되면서 기존의 획일적이고 주어지는 개념의 국가정체성에서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존재하는 다문화, 다민족적인 국가정체성 또는 개인의 의지로 국가를 선택할 수 있는 사회로 변화하였다. 제 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국가 정체성은 남한, 북한, 그리고 중국의 경계선에 놓여있는 특수한 사례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정체성을 개인이 국가에 대해 가지는 감정과 그 나라의 국민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자기인식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이들의 국가정체성이 어떠한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는지 분석하였다.

이에 본 장에서는 첫째,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국가정체성을 디아스포라 맥락에서 접근하여 디아스포라 경험이 국가정체성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둘째, 심층면담을 통해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국가정체성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남한, 북한, 그리고 중국에 대한 생각을 듣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국가정체성의 특징에 대해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셋째, 다중적이고 복합적인 국가정체성으로 인해 한국사회의 일반적 시민 수준의 국가정체성 형성에 곤란이 발생하는 원인을 심층면담을 통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1. 디아스포라 경험을 통한 다중적 국가정체성

디아스포라(diaspora)⁴⁾경험을 통한 다중적 국가정체성이란 중국에서의 헤어

4) 디아스포라의 사전적 의미는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팔레스타인을 떠나 온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유대교의 규범과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유대인을 이르던 말이다. 디아스포라는 '헤어

짐과 남한에서의 재회를 경험하면서 중국과 한국에서 형성된 양국 모두에 속한 국가정체성을 말한다. 본 연구는 디아스포라 경험을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중국에서 북한 출신 어머니, 중국 국적 아버지와 함께 살다가 중국내에서 어머니가 탈북자로서의 불안정한 신분을 벗어나고자 남한으로 홀로 입국하면서 경험한 헤어짐과 남한에서의 재회 및 현재까지의 모든 과정으로 정의한다(김유정, 2012). 다중적 국가정체성이란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중국에서 형성한 중국인으로써의 국가정체성 바탕위에 남한으로 입국한 후 새롭게 형성된 국가정체성 모두를 동시에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본 장에서는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다중적 국가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디아스포라 경험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고, 이를 통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국가정체성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자와 심층면담을 진행한 6명의 아이들 중 나영⁵⁾이를 제외한 5명의 아이들은 앞으로 자신들이 살아갈 나라는 남한이라고 대답했다. 아이들이 남한에서 살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더 이상 가족과 헤어져 사는 이산의 고통을 겪고 싶지 않아서라고 응답했다. 중국에서 북한이탈주민 신분의 어머니는 중국 공안을 피해 도망 다니고 숨어 살 수밖에 없었고, 자신들도 어머니의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해 정식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타인의 호구를 위조해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어머니가 안전한 신분을 보장받고자 남한에 입국하면서 함께 온 아이들은 어린나이에 디아스포라를 경험하였던 것이다.

저 헤어짐'이라는 뜻을 가진 '이산'이라는 단어로도 설명할 수 있다.

5) 나영이의 경우 남한에 입국한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아 국가정체성과 같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 어려웠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고 있었다.

연구자: 중국에서 학교 잘 다니다가 온 거잖아... 왜 한국에 오고 싶었어?

민 화: 엄마 생각 많이 나고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 했어요 엄마 나도 한국 가고 싶다 말하니까 ... 저한테 너도 그렇게 오고 싶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저는 엄마랑 같이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 갈래요 했어요. 중국 여권을 받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중국에서부터 기차도 타고 버스도 타고 산 넘고 엄청 힘들었어요... 그때 산 넘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포기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엄마랑 살 수 있는 그거 때문에 이렇게 왔어요. 엄청 힘들었어요.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대부분 민화처럼 어린나이에 디아스포라를 경험한 상처를 안고 있다. 민화와의 심층면담 중에서 “엄마랑 살 수 있는 그거 때문에 이렇게 왔어요.”라고 말한 부분은 어머니를 오랫동안 그리워했고,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라도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헤어짐과 재회의 과정에서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디아스포라를 이중으로 경험하게 된다. 어린나이에 어머니와 헤어져야 하는 것을 1차적 디아스포라라고 한다면 남한에서 어머니와 재회하기 위해 중국을 떠날 때 아버지 또는 친척들과 헤어짐을 2차적 디아스포라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디아스포라를 이중으로 경험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의 정체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어머니와 떨어져 지내야 했던 시간동안 아이들은 중국에서 중국의 국가정체성을 형성하고, 어머니를 찾아 남한에 입국하여 중국인으로써의 정체성을 간직한 채 새로운 국가의 정체성을 형성하여 두 개의 국가정체성이 동시에 형성되는 다중적 국가정체성을 가지게 된다.

아이들이 다중적 국가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 정체성

에 관해 묻는 ‘넌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라는 질문과 ‘너의 나라는 어디라고 생각하니?’라는 질문을 하였고, 이 질문에 총 6명의 아이들 중 4명은 한국, 1명은 중국, 나머지 1명은 잘 모름이라고 대답했다. 한국이라고 대답한 아이들은 그 이유를 지금 한국에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나라가 남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중국을 선택한 아이들은 출생지와 남한에서의 길지 않은 체류 기간으로 비교하거나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여 중국을 선택했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1명은 고민은 해봤지만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반면에, 조국에 대한 질문으로 ‘너의 나라는 어디라고 생각하니?’라는 질문엔 한국이라고 대답한 2명⁶⁾의 아이들을 제외한 모두 자신이 태어난 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중국을 나의 나라로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넌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니?’라는 질문을 통해 자기 인식으로의 국가 수준의 국가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Brubaker, 1992; 전우택·유시은·이연우(2011), p3에서 재인용). 그리고 ‘너의 나라는 어디라고 생각하니?’라는 조국에 대한 질문을 통해 국가에 대한 애착 및 소속으로 개인수준에서의 국가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Evans and Kelley, 2002; 정기선·이선미(2011), p49에서 재인용). 아래 다슬이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국가정체성이 남한과 중국 모두에 속해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연구자: 다슬이는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해?

다 슬: 한국사람... 한국에 있으니까...

연구자: 너의 나라가 어디냐고 물어 봤을 때 뭐라고 대답할거야?

6) 민숙이와 경원이가 이에 해당한다. 민숙이는 6살에 남한에 입국하였고, 남한에서 생활한지 8년째여서 남한사람으로써의 단일국가정체성을 형성하였다. 경원은 남한에 입국한지 3년 정도 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스스로를 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조국 또한 남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남한사람으로써의 단일국가정체성을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슬: 중국이요

연구자: 왜 그렇게 생각해?

다 슬: 태어나고 자랐잖아요.

다슬이가 남한에서 형성한 국가정체성은 국가수준에서의 국가정체성이며, 중국을 바탕으로 형성하고 있는 국가정체성은 개인수준에서 형성된 국가정체성이다. 또한, 자신의 정체성을 중국을 고향으로 둔 한국인으로 남한과 중국 사이의 국가정체성의 타협점을 찾아 자신을 정의하는 유연함을 보여주고 있다. 비단 다슬이 뿐만 아니라 연구자가 심층면담을 진행한 아이들은 대부분 이와 유사하게 답변하였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제3국 출생 북한이 탈주민 자녀들이 경험을 통해 현실과 환경에 타협함으로써 다중적 국가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화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본 논문은 다중적 국가정체성을 가진 아이들이 국가정체성에 대해 가지는 유연한 생각을 확인하였다.

연구자: 경화는 여기 오면서 한국 국적이 또 생겼잖아 어떤 느낌이야?

경 화: 너무 좋아요 왜냐면 나는 중국 사람도 될 수 있고 한국 사람도 될 수 있고 내 선택이잖아요 자유로 와서 좋은 거 같아요.

연구자: 현재 국적이 어떻게 돼?

경 화: 저는 지금 몰라요, 18살 때 다시 생각해야 해요. 저는 중국할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처럼 살 수 있는 거 등록할 거예요. 왜냐하면 몇 년 후에는 중국이 더 커서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나는 중국 사람도 될 수 있고 한국 사람도 될 수 있고 내 선택이잖아요.” 라고 말한 바와 같이 다중적 국가정체성을 갖는 것에 유연한 사고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새로운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다. 질문에 대한 응답

을 중국으로 결정하면서 살고 싶은 곳은 한국이라고 답하는 것은 아이들이 어느 곳에도 온전하게 속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동시에 아이들이 혼란 속에서 국가정체성이 형성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아래 인터뷰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것처럼, 다슬이는 디아스포라 경험과 재결합의 경험에 영향을 받아 국가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

연구자: 예전에 고민할 때 한국 국적을 택해볼까? 했을 때는 무슨 이유 때문이었어?

다 슬: 아! 내가 중국을 택한 이유는 거기 친구들 만나서 공부하고 그런데 또 한국을 떠나니까 중국으로 가면 한국이 아까우니까 한국에서 살까 생각이 들었는데 또 한국에서 살면 친구들도 있는데 중국에 있는 친구들도 보고 싶고 중국이 그리웠어요. 그래서 좀 어려웠죠. 어디에 갈지 지금은 생각하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나 여기서 멈췄으면 좋겠어요.

“나 여기서 멈췄으면 좋겠어요.”라는 응답은 다슬이가 이중 국적자로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겪고 있는 혼란을 잘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점은 심층면담을 진행한 아이들 모두 국적과 국가정체성을 구분 짓지 못하고 중국국적을 가지는 것과 중국사람, 한국국적을 가지는 것과 한국 사람을 동일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국적선택에서의 혼란을 국가정체성형성의 혼란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들이 디아스포라 경험을 통해서 다중적 국가정체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중국 내에서의 불안한 신분이 디아스포라를 경험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이들은 중국, 북한, 남한의 경계선에 서게 되며 국가정체성에 혼란을 겪으면서 청소년

시기를 보내게 된다. 이들은 어린나이에 어머니와 헤어지는 디아스포라를 경험하면서 상처를 갖게 되는데 이는 1.5세대의 다중적 국가정체성과 구분되어야 한다. 다중적 국가정체성은 유연한 사고를 바탕으로 두 개의 국가사이에서 교집합을 찾음으로써 자신만의 국가정체성을 정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이에 반해 경계인으로써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못하더라도 그리고 이 때문에 국가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을 충족시킬 수 없더라도 국적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측면에서는 부정적이다.

이러한 특징들로 미루어 볼 때 이들이 앞으로 중국을 고향으로 둔 한국인으로 살아가는데 있어 도움을 줄 수 있는 시민교육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2. 북한이탈주민의 지위에 의해 매개되는 국가정체성

북한이탈주민의 국가정체성은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이 북한이탈주민 신분의 어머니로 인해 중국과 남한에 살게 되면서 경험한 편견, 차별, 불안함의 영향하에서 형성된다.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남한·중국·북한의 경계에 서있는 경계인으로 이들의 가족 구성은 중국 국적의 아버지와 정치적·경제적 이유로 북한을 이탈한 북한이탈자 신분의 어머니,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로 이루어져 있다. 아이들의 북한이탈주민 자녀라는 신분 특성은 갈등을 겪게 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이절에서는 어머니의 북한이탈자 신분이 중국과 남한에서 이 아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국가정체성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경화와의 심층면담은 중국에서 어머니가 북한이탈주민이기 때문에 받은 편견으로 가족 모두가 차별받아온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자: 왜 안돌아가고 싶었어?

경 화: 왜냐면요 친척이 없어요. 중국에서 아빠 쪽이 친척 많은데
요. 어릴 때부터 우리 집 안 좋아했어요. 왜냐면 엄마가 북한사람 이라 서요. 아빠도 공부 많이 못 했어요 계속 혼자 살다가 우리 엄마 만나서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우리엄마 안 좋아해요. 싫어해요. 우리 엄마도 잘 할 수 있는데... 계속 우리 집에서 뒤에서 욕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친척들 안 믿거든요.

“어릴 때부터 우리 집 안 좋아 했어요. 왜냐면 엄마가 북한사람 이라 서요.” 라는 경화의 말은 중국에서 북한이탈주민이 겪고 있는 차별과 고통을 잘 보여 준다. 북한이탈주민이라는 것만으로도 중국에서는 차별의 대상이고, 북한이탈 주민 당사자 뿐 만 아니라 가족 또한 이러한 편견과 차별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다. 또한, 다슬이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중국내에서 어머니가 자신의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해 도망 다니고 숨어살아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불안함이 누적된 것이다..

연구자: 어떤 점이 무서웠어?

다 슬: 엄마가.... 그때는 아무생각도 안 들었어요. 엄마는 북한사람이니까 중국에서는 편하게 못산다고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항상 엄마가 피해 다니고 저는 옆에서 좀 무서웠어요. 보기 싫어요. 막 경찰들이 와서 집 뒤지고 아빠까지 숨고 그러니까 아 나도 숨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죠.

“엄마는 북한사람이니까 중국에서는 편하게 못산다고요.”라는 대답은 중국에서 북한이탈주민인 어머니의 지위가 인간으로써 마땅히 누려야 하는 편안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늘 불안하게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이러한 불안함이 중국에서 살아갈 때 위험요소로 작용하여 어머니는 중국에서 안정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가 없었다. 결국 이 불안함이 어머니가 남한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가장 큰 동기가 되고 자녀들에게 디아스포라를 겪게 하는 것이다. 중국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신분으로 겪었던 편견, 차별, 불안함을 벗어나기 위해 남한으로 입국한 뒤에도 여전히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고 이는 자녀들에게까지도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다.

민화와의 심층면담을 통해서 어머니의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남한에서 받고 있는 편견, 차별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다.

연구자: 지금 한국친구들과 다른 점이 뭐라고 생각해?

민 화: 출신?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엄마아빠 다 옆에 있고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한국에서 살잖아요. 우리는 엄마는 북한사람인데 애가 중국 사람이예요 그리고 한국 와서 적응하니까 첫 번째는 아무래도 아 애는 중국에서 왔구나. 엄마는 북한사람이래 이런.. 그러니까 일반학생들 생각하는 거 좀 그런 거 같아요. 엄마는 북한사람이래 애는 중국에서 태어나고 아빠도 중국 사람이래..

‘일반 학생들 생각하는 거 좀 그런 거 같아요.’는 일반학교 학생들이 어머니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신분에 편견을 가지고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을 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민화는 일반학교 학생들이 자신을 다른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고 그런 보이지 않는 편견이 자신들이 일반학교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편견은 어머니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꼬리표가 되어 제3국 출생 북한

이탈주민 자녀들에게 따라다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꼬리표가 계속 따라다닌다면 아이들이 남한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빗물학교와 같이 자신의 처지와 같은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킴을 보여준다. 민화와의 심층면담을 북한이탈주민인 어머니가 자녀에게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통해 어머니가 북한이탈주민으로서의 신분을 극복하였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했다.

연구자: 엄마한테 북한 얘기 많이 들어봤어?

민 화: 아니요 저는 작년에 6월 달에 알아가지고요 엄마는 자주 말해요 이모랑 말하는데 저는 못 듣는 척 하고 조금씩 들어요. 그런데 말 잘 못 알아들었어요. 대충대충만 알아들었어요. 언니 오빠 다 북한에 있는데 다 결혼했는데 애도 낳고 엄마가 20살 때 중국에 왔대요. 뭐 그런 거 조금씩 들었어요. 집에 가도 엄마 일 나가니까 별로 얘기도 안하고... 예전에는 모르겠어요. 엄마가 화 내시니까요 한 세 번 물어봤는데 화내시니까 안 물어 봤어요. 그래서 절반은 북한 사람인가? 절반은 중국 사람인가? 생각 했어요

민화와의 면담 내용 중 “엄마는 자주말해요 이모랑 말하는데 저는 못 듣는 척 하고 조금씩 들어요.”라는 대목을 통해서는 같은 북한이탈자주민신분의 사람들과는 서로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자신들의 자녀들에게는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고, 숨기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신들의 신분이 자녀들에게 대물림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나타낸다. 또한 민화가 어머니에게 북한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어머니가 화를 냈다고 하는 내용 또한 자신이 북한에서 받았던 고통이 자녀들에게도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신분으로 받았던 고통이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

녀들에게 대물림되기를 바라지 않았고, 신분의 불안함을 숨김으로써 자녀들은 북한이 어머니의 고향이라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북한을 자신의 국가정체성에 담아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어머니의 과거 신분 때문에 아이들이 사려 깊은 배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하루 빨리 이러한 곤란에서 아이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대안적 시민교육이 제공되어야 하겠다.

3. 남한사회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에 근거한 국가정체성

남한사회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에 근거한 국가정체성이란 제3국 출생 북한 이탈주민 자녀들이 남한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의 불균형으로 인해 형성된 국가 정체성이다. 연구자와 심층면담을 진행한 빛물학교의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남한에 대한 인식을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나라,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나라로 생각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인 어머니의 불안정한 신분으로 중국에서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쫓기고 숨는 모습을 보아 오다가 남한에서의 자유를 경험한 후 남한은 자신들의 신변을 충분히 보호해준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아이들이 남한 사회를 균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빛물학교의 경우 남한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학력을 갖게 해주기 위한 검정고시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남한사회를 바라보는 균형적인 시각을 길러 주기에는 미흡하여 아이들이 빛물학교 이후의 사회생활에 잘 적응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이다. 또한 우리의 시민교육이 아이들이 남한사회에서 살아감에 있어 전통적인 고정관념에 근거한 국가 정체성을 갖도록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다음 다슬이와 민화의 심층면담은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이 남한에서의 짧은 경험만으로 남한 사회를 판단하고 정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자: 중국에 여행갈 때 한국여권, 중국여권 중에 어떤 여권 낼 거야?
다 슬: 어우 왜 그러세요. ㅎㅎ 한국 끼요... 제가 말 했잖아요 중국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한국인처럼 중국 가서 놀고 싶어요.
연구자: 너에게 국가란 어떤 거야?
다 슬: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 한국은 자유롭게.. 중국은 피하면서... 충격적인 게 내가 만약에 어렸으면 5살? 아무 기억도 안 날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성장하면서 보게 되니까 계속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무섭고 불안스럽고 그런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중국에 살고 싶다고 중국 사람이라고 할 것 같아요.. 지금 그런걸 아니까 한국 사람이라고.

연구자: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줘야 한다고 생각해?

민 화: 네

연구자: 그럼 남한이 민화를 잘 보호해주고 있다고 생각해?

민 화: 네

연구자: 어떤 점에서?

민 화: 음... 저는 중국 사람인데 저를 받아줬잖아요 왜냐하면 북한사람은 한국이 다 받아주잖아요 원래 한민족이었으니까 그런데 저는 중국 사람인데도 받아줬잖아요 한국에서요 또 중국에서 태어난 학생들 받아주고 보호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럼 점에서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 왔는데 받아주고 그런 거 없잖아요 이민가거나 뭐 모르겠는데 그런 거 아니면.. 북한이랑 한국은 연결되니까요 북한사람이 한국 오면 집도 주고 보호하잖아요. 사는 방법 뭐 그런 거도 알려주고.. 그런데 우리는 중국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도 한국 와서 우리는 도와주고 인정해주니까요 시험도 볼 수 있고

연구자: 민화는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어?

민 화: 한국은 환경도 좋고... 중국은 좋은데도 있고 안 좋은데도 있잖
아요. 한국 사람은 옷도 예쁘게 입고 예의도 바른 거 같아요.

아이들은 남한을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도와주는 나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아이들이 남한사회의 단편적인 부분만을 경험한 것으로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사회에 진출 했을 때 잘 적응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앞으로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상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빛물학교의 아이들 중 일반학교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여 왕따를 경험한 아이들도 있지만, 남한 사회의 불합리성과 차별을 직접적으로 경험해본 학생은 없었기 때문이다.

아이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연구자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아이들이 한국 일반학교에서의 경험이 매우 적었고 한국사회를 경험한 것은 빛물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전부였다. 특히 부모님이 한국에 다 계신 경우에도 생계를 위해 같이 살 수 없는 환경에 아이들은 빛물학교에 보내져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남한사회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없었던 점들이 아이들이 한쪽으로 치우친 고정관념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다슬이와의 심층면담은 빛물학교에서만 생활하게 되면서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자본주의의 어두운 면을 가정에서 보게 된 점을 알 수 있다.

연구자: 아버지는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셔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셔?

다 슬: 아빠는 중국가고 싶대요. 여기는 힘도 들고 있기 싫대요. 돈이 필요하니까 저는 중국에서 돈이 어디 생기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한국 왔는데 아빠가 일하는 모습 보고 엄마가 일하는 모습 보고 아 힘들구나 생각 들죠.

다슬이와의 심층면담을 통해서 빛물학교에 다니고 있는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가정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부모님이 모두 생업에 바쁘셔서 빛물학교 기숙사에 아이들을 맡겨놓고 바쁘게 일하는 가정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빛물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이 모여 있어서 한국사회를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어 제한된 정보를 통해 한국 사회를 이해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연구자가 심층면담을 한 바와 같이 아이들은 남한 사회에 대해 객관적으로 보고 있지 못하며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경험과 생각은 부족하다. 중국에서부터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상처를 안고 비슷한 경험을 한 아이들이 한국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단절된 기숙사에서 뭉쳐 살고 있다 보니 빛물학교 밖의 사회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어 남한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부족하다. 즉, 일반학교의 경우 다양한 배경을 가진 다양한 성격의 친구들을 통해 사회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배우게 되지만 빛물학교에서는 다양한 경험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또한 사회교과를 통해 비판적인 사고와 균형적인 관점을 배울 수 있는데 반해 빛물학교의 아이들은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환경이 부족하다. 이러한 고정관념에 근거한 국가정체성을 균형 잡힌 국가정체성으로 변화 시키려면, 빛물학교 내에서의 교육뿐만 아니라 남한 사회를 이해하고 균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시민교육의 변화가 필요하다.

VI. 결론 및 시사점

제 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남한, 중국, 북한의 경계선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거나 타협점을 스스로 찾아 남한사회에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인 어머니를 따라 남한에 왔고, 앞으로 자신들이 살아갈 터전이 남한이라는 것은 알지만, 어느 한 곳에도 속하지 못한 경계인의 경험은 단일국가 정체성을 확립하지 않게 하고 남한과 중국 사이의 타협점을 찾아 자신들만의 국가정체성을 형성해 나간다. 이러한 국가정체성을 디아스포라 경험을 통해 형성된 다중적 국가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들의 다중적 국가정체성은 단일민족사회에서 다문화, 다민족 사회로 변화하는 한국 사회에 살아가기 위한 도구이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국가정체성이 디아스포라 경험을 통해 다중적으로 형성된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중국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중국을 고향으로 생각하며 자신의 나라는 중국으로 인지하고 있다.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남한과 중국에서 겪었던 디아스포라 경험이 주된 요인이다. 남한과 중국 사이에 어느 한쪽에도 온전하게 속하지 못하게 했던 디아스포라 경험들이 아이들 스스로 현실에 타협하여 중국을 고향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한국에서 살아갈 한국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제 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중국과 한국 국적을 모두 소유한 복수국적자이다. 이들은 만 20세가 된 이후 2년 이내 즉 만 22세 이전에 중국과 한국 국적중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만 한다. 아이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복수국적을 소유하고 있지만 향후에 성인이 되어 국적을 선택해야만 한다는 것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들에게 국적이란 앞으로 자신들이 살아갈 나라를 개개인의 경험, 환경, 미래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디아스포라 경험으로 형성된 다중적 국가정체성을 가진 아이

들에게는 한 국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둘째, 다중적 국가정체성을 가지는 다른 해외동포나 이주외국인과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디아스포라 경험이 상처로 남아 있는 것이다. 어머니의 손길이 가장 필요한 유년기에 어머니와 떨어져 살아야 했고, 헤어짐의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슬픔은 아이들이 감당하기에는 큰 짐이다. 또한, 남북한의 분단 상황과 북한과 중국의 관계 속에서 어머니가 남한으로 가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어린 아이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 벅찬 상황이었을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큰 충격으로 겪었던 이산 경험은 트라우마로 남아있어 아이들의 삶 속에 깊이 각인되어있다. 이러한 기억, 감정들을 드러내고 치유하지 못하고 상처를 억누른 상태에서 현실에 타협하며 경계인으로써 국가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아이들에게 큰 어려움이다.

셋째, 어머니의 북한이탈주민 지위가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국가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주는 주된 요인이다. 중국에서 북한이탈주민 신분의 어머니는 불안정한 신분으로 사회에서 고립되어 숨어 지내거나 도망 다녀야 하는 현실에 놓여있고, 아이들은 이러한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북한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포기하게 되고 중국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된다. 또한 남한에 어머니를 따라 입국해서는 남한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바라보는 편견과 싸우며 스스로를 고립시키거나 자신의 어머니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것을 숨기며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된다. 북한이탈주민 신분의 어머니를 둔 아이들은 어머니가 북한사람이라는 꼬리표를 간직한 채 남한과 중국의 경계인으로서 다중적 국가정체성을 갖게 된다.

본 연구에서 얻은 위의 결과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시민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들이 겪은 디아스포라로 인한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기존의 근대적이고 획일적인 국가정체성을 교육하기 보다는 다양한 국

가정체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임을 알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또한,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에게도 일반 탈북청소년이 받는 정서치유프로그램 제공과 같은 제도적인 장치와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아래와 같다.

1. 검정고시 중심의 대안학교 교육이 가지는 한계

빛물학교 아이들은 검정고시 합격을 위한 주입식 교육을 받아 자신의 적성에 맞는 자기개발 기회를 충분히 제공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 빛물학교가 제공하는 검정고시 위주의 주입식교육은 상급학교로 진학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이러한 주입식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 수준에 그칠 수 있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마땅히 받아야 하는 시민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주입식 교육의 문제점으로 국가에 대한 균형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을 갖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자기주도형 학습 습관을 기르는데 검정고시 위주의 수업이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들은 창의적인 사고나 역량을 개발해 줄 수 있는 자기주도학습, 수행평가, 협동학습 등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뒤쳐진 보충반 아이들처럼 단순화된 교육을 받고 있어서 다양한 수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빛물학교 아이들의 연령대는 10대 초반에서 후반사이의 감수성이 풍부하고 예민한 시기이다. 이들에게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아이들에게 단순히 중국에서 남한으로 입국하여 언어적인 어려움으로 뒤쳐져 버린 공부를 따라잡는 검정고시 위주의 교육뿐만 아니라 학생 스스로 자신이 남한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지 많은 기회들을

탐색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신의 적성에 맞춘 자기 주도형 교육을 제공함과 동시에 제3국에서 취득한 학력을 인정해주는 제도의 시행이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 제 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교육 실태를 조명해보았을 때, 검정고시 중심의 대안학교 교육의 한계가 드러남을 볼 수 있다. 이들을 교육하는 대안학교에서는 검정고시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 아이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시민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들을 위한 시민교육은 단일 국가정체성에서 벗어나 다중적인 국가정체성에 기반 하여 중국과 남한 사이에서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비교하고 검토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 할 때 현명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우리의 시민교육이 필요함을 일깨워주는 가치가 있다.

2. 국가정체성 형성의 장애요인과 시민교육에서 방치된 아이들

제3국 출생 북한 이탈주민 자녀들이 중국에서 남한으로 입국하게 되는 주된 이유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다. 남한에 입국 후 아이들은 어머니와의 재회의 기쁨과 동시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많은 혼란을 겪게 된다. 아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임을 법적으로 보장 받지만 북한 이탈주민 자녀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녀서 어머니가 북한 이탈주민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에 매우 부정적이다. 따라서 아이들은 자신의 국가정체성을 드러낼 필요가 있을 때는 어머니의 출신인 북한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이 태어난 중국과 현재 살고 있는 남한 중 하나를 선택한다.

아이들이 북한 이탈주민 자녀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는 이유는 북한 이탈주민에 대해 남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차별의 태도 때문이다. 남한 사회에 존재하는 북한이탈주민과 그들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편견과 차별의 태

도가 아이들의 국가정체성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체성이 본래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이들이 어떤 편견도 고려하지 않은 가운데 자연스럽게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한에서 북한을 바로 보는 왜곡된 시선 그리고 이념적인 잣대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런 왜곡된 시선과 이념적인 논의가 지속된다면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편견과 차별로 부터 벗어날 수 없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제3국 출생 북한 이탈주민자녀들이 겪는 디아스포라 경험과 어머니의 북한이탈주민 신분으로 인해 겪었던 차별로 인한 상처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들의 문화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방향으로 시민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이 자신의 국가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있어 자신의 출신 배경과 환경을 감추거나 부정하지 않고 긍정적인 국가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실질적인 도움과 위로가 되는 대안적 시민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3. 경계인을 위한 시민성 교육의 가능성 탐색

우리나라 시민교육은 다른 나라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을 인정하고 함께 공동체를 꾸려나가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다. 이는 우리의 시민교육이 태생적으로 한국인인 아이들만을 위한 시민성 교육에 매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처럼 단일 국가정체성에 맞춰진 교육은 이중 국적을 소유하고,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입장의 아이들에게 큰 정체성의 혼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일 국가정체성에 초점이 맞춰진 교육과 다양한 국가정체성을 가진 아이들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연하고 다양한 국가 정체성을 인

정하고 포용할 수 있는 시민교육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국가 정체성 형성에 있어 자신의 선택에 따르는 권리와 책임에 대한 교육, 그리고 세 나라의 경계에 서있는 자신을 돌아 볼 수 있는 대안적 시민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사회를 이해 할 수 있는 교육과 동시에 밖으로 나가는 세계화뿐만 아니라 안으로 들어오는 세계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아이들의 국가정체성 형성 곤란을 해소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디아스포라 경험을 통해 다중적 국가정체성을 형성한 아이들이 남한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이들이 남한사회에서 받는 차별 및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실태조사에 머무른 반면, 본 연구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국가정체성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여 이들의 국가정체성을 상처를 동반한 디아스포라 경험을 통한 다중적 국가정체성으로 특징 했다는 것에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둘째, 이러한 디아스포라 경험으로 형성된 다중적 국가정체성의 특성을 바탕으로 이들이 미래에 국적을 결정함에 있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도록 우리의 시민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이 의미 있다. 셋째, 향후 이들이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했을 때 남북한의 분단 상황과 출생국가에서의 경험, 거주 국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된 국가정체성을 한국 사회가 포용하고 이해하기 위해 기존의 일반학생들을 위한 교육도 변화해야하고, 주류적인 아이들과 경계인으로써 소외받고 있는 아이들의 교육이 동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알게 한 것이 본 연구의 중요한 가치이다.

참고문헌

- 강봉구 외(2010), 「유라시아 지역의 국가·민족 정체성」, 한울.
- 권나혜(2005), 「남한 내 탈북이주민 대학생의 정체성과 생활경험」,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명선·이동훈(2013). 「탈북청소년의 남한 사회 적응 특성에 관한 연구」, 『재활심리연구』, 제20권 제1호, 39-63쪽.
- 김신희(2014). 「탈북청소년의 국가정체성」, 『한국사회과교육학회 학술대회지』, 189-201쪽.
- 김신희(2014), 「탈북청소년의 시민성 연구」,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신희·이우영(2013). 「탈북청소년의 민주적 가치에 대한 인식」, 『현대북한연구』, 제17권 제3호, 268-313쪽.
- 김유민(2014), 「초등학교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국가정체성 형성에 관한 사례연구」,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유정(2011), 「북한이탈 청소년의 이산 경험」,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윤나(2014). 「제3국 출생 비보호 탈북청소년의 인권 지원 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연구」, 『법과인권교육연구』, 제7권 제3호, 21-39쪽.
- 김정림·차현지(2012).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비보호 청소년)의 보호 및 지위개선을 위한 법적방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검토」, 『통일과 법률』, 제11권, 127-161쪽
- 김정미(1999), 「탈북여성의 정체성 변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지영(2013),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자녀 미술치료 단일사례 연구」, 동

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송영호(2009), 「한국인의 국민정체성과 다문화 수용성」,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심우엽(2009). 「다문화 학생의 민족정체성 및 정서적 특성」, 『초등교육연구』, 제22권 제4호, 27-47쪽.

심 원(2006), 「새터민 청소년들의 정체성 교섭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오원환(2011), 「탈북 청년의 정체성 연구 : 탈북에서 탈남까지」,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한태(2013). 「헌법상 ‘민족’ 개념에 대한 소고」,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4권 제2호, 415-443쪽.

조정아(2014), 「탈북 청소년의 경계 경험과 정체성」, 『현대북한연구』, 제17권 제1호, 101-155쪽.

전우택·유시은·이연우(2011), 「북한이탈주민의 국가정체성 형성과 유형 : 근거이론에 의한 분석」, 『통일연구원』, 제20권 제2호, 1-35쪽.

전혜림(2014).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남한사회적응」,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기선·이선미(2011), 「다문화사회와 이주민의 정체성 ; 한국인의 국민정체성 국제비교연구 : 자격요건 평가를 중심으로」, 『국제비교한국학회』, 제19권 제1호, 45-73쪽.

최대석·조은희(2010), 「탈북대학생들의 국가정체성 형성과 변화」, 『북한연구학회보』, 제14권 제2호, 215-240쪽.

남북하나재단(2014), 「2014 탈북청소년 실태조사 : 착한동행」,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부(2014), 「2014년 탈북학생 통계」, 교육부.

통일부(2014), 「2014 통일백서」, 통일부.

통일부 정착지원과(2014),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김명성(2015), 「제3국 출생 탈북子女 ‘지원 사각지대」, 조선일보 2015년 3
월 16일

Abstract

The State and National Identity of Third Country Birth
Children of North Korean Refugees :
The Undertone of Multicultural Education

Hae Ri Cho

Major in Social Studie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critically analyze the state and national identity and the process of its formation of the third country birth kids of North Korean refugees which are in the boundary of South Korea, China and North Korea. The research delve deep into the education system they are put under and suggest the civic education they should receive in order to have proper national identity.

To achieve this Goal, I analyzed the actual condition of education through attending the sociology classes of the alternative school for the third country birth students called the Light and Water institute, and by interviewing the teachers of the institute. By analyzing the data, I was able to come up with two conclusions. First, the current curriculum

provided at the Light and Water Institute, which mainly consists of GED qualification exam, is not helping the students to find the study that fits their aptitude.

Second, the research can conclude that the national identity of third country birth kids of North Korean refugees have multicultural national identity based on diaspora experiences. Their mother was mistreated in both China and South Korea, being a refugee, and it made the students to develop their national identity under uneasy and troubled situation. They were also developing their national identity with imperfect information of South Korea.

In conclusion, the research suggests two main implications. First implication is that the qualification exam based education at the Light and Water institute is very restrictive on self-directed learning and the situation of left behind students from citizen educational system which indicates the need of change for the social minorities. Second, the research implies the need of balanced civic education for them to adapt to South Korean society which implies the need of understanding and acceptance of South Korea's civil society in order for the third country born refugees to adapt to South Korean society and become citizens of it. And they need the correct and balanced civic education to achieve such objective.

빛물학교 학생 대상 1차 심층면담 반구조화 된 질문지

(개인 신상에 관한 질문)

몇 살이야?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어? 어느 지역에서 살았니?

그 곳에서 얼마 동안 살았니?

중국에서 어느 학교를 다녔니? 학교 어땠어?

언제 한국에 들어왔니?

한국에서는 누구랑 살고 있어?

(일상생활에 관한 질문)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스케줄이 어떻게 되니?

학교 끝나면 뭐하니?

친구들하고 뭐하고 노니?

TV도 보니? 무슨 프로가 재미있니?

좋아하는 연예인 있어?

(학교생활 및 수업에 관한 질문)

학교에서 배우는 수업 중에 제일 재미있는 내용은 뭐니?

재미없거나 지루한 건 뭐야?

학교에서 수업 들었던 것들 중에 남한사회에 대해서 어떤 것을 배웠니?

검정고시 시험 통과하는 것 말고 너에게 도움을 줬던 내용들은 뭐가 있니?

중국에서 학교 다닐 때에도 국사나 사회과목을 배웠니?

한국 중심으로 역사를 배우는데 어떤 느낌이었니?

얼마 전에 다른 일반학교로 간 친구 있잖아. 너도 일반학교에 가고 싶은 생각은 있니? 부모님은 어떤 생각이셔?

(남한인식에 대한 질문)

한국에 와서 제일 신기했다거나 낯설었던 것은 뭐였어?

남한사회가 중국이랑 봤을 때 다른 점들 있어?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기 전에 생각했던 남한하고 실제로 여기서 살면서 알게 된 남한하고 어떻게 다르니?

왜 그렇게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어?

중국과는 달라서 특이했던 남한사회에 대한 것들이 있니?

남한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니?

남한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배워가고 있을 텐데 너에게 가장 잘 알려주는 수단이 뭔지 얘기해 줄 수 있니? 예를 들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인지 스마트폰에서 얻는지 아니면 엄마나 아빠를 통해서 얻는지 또는 또래친구를 통해서 얻는지 이런 것 들 중에서 어디에서 정보를 많이 얻니?

남한에서는 아직까지는 같은 동포이기는 하지만 적국으로 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는 어떤 생각이 들었니?

(부모님에 대한 질문)

부모님은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니?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니?

한국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니?

혹시 한국에 오신 걸 후회하시기도 하니?

부모님 얘기 엄마가 북한에 대해서 얘기 해주셨니?

엄마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잖아. 그럼 넌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국가정체성에 대한 질문)

월드컵 경기에서 중국이랑 한국이랑 경기한다면 어느 나라를 응원하고 싶어?

솔직한 너의 생각을 듣고 싶어.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000학생 2차 심층면담 전문

Q: 여기 학교 다니면서 많이 배운 거는 뭐라고 생각해?

A: 여기 서요? 공부... 하하하

Q: 여기 학교에서 배운 모든 것들이 남한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거나 이해하는데 영향을 줬어?

A: 음.. 네

Q: 왜? 어떤 점에서? 그전에는 남한에 대해 어땠어?

A: 몰랐어요 그냥 중국에 있을 때 한국이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자세히는 몰랐고..

Q: 이 학교가 너에게 어떤 의미라고 물어본다면?

A: 하하... 여기 있으면 남한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북한에 대해서도... 엄마가 살던 북한... 예전에는 북한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몰랐어요. 엄마가 북한사람인지도 몰랐고요 얘기해본 적도 없었어요. 한국에 와서 북한 얘기 하니까 아... 하고 알고...

Q: 한국에서 검정고시 공부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

A: 하기 싫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냥 공부자체가 싫어요. 그래도 해야 하니까... 엄마한테 칭찬받아서 기분도 좋았고... 꼭 해야 되는 거...

Q: 왜 꼭 해야 하는 거 같아?

A: 공부안하면 할 거 없지 않아요? 나가서 알바 할 순 없죠.. 그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 가고 졸업하면....

Q: 검정고시가 대학교를 가기 위한 단계들인거야... 아니면 지금 내 나이 대는 공부를 해야 하니까 하는 거야?

A: 그런 것도 있고요 다 패스해야하고 대학교 가야하니까..... 두 개 다..

Q: 다른 한국아이들과 OO의 다른 점이 뭐 같아?

A: 한국말? 그리고 내가 중국에서 왔으니까 뭔가 차별받는 느낌? 그런 느낌도 있고 아 일반학교 가기 싫어요. 그래도 가야해요... 그냥 이렇게 쪽 갔으면 좋겠는데 안 될 것 같아요 대학교 가려면 일반학교 가서 가야하니까...

Q: 대학교 가기 전에는 일반학교 갈 거야?

A: 네... 그런 계획도 있죠....

Q: 고등학교 때?

A: 고입을 봐야하는데 아직 나이가 안 되서 아직 공부먼저 하고 나이가 좀 되면 고입을 봐야죠. 그런데 일반학교는 가기는 싫어요. 그런데 생각해보고 상황을 봐서...

Q: 왜 가기 싫어?

A: 가서 힘들 거 같아요. 뭔가 거기서 차별 있는 거 같아요.

Q: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힘들었거나 슬펐던 일은 뭐야?

A: 엄마가 중국에서 저를 떠났을 때... 그냥 학교도 가기 싫었고.. 그때 학교 갈 준비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짐 싸서 나갈 때 었어요. 그래서 그때 엄마 손을 꼭 잡고 창문에서... 가지 말라고... 엄마 가지 말라고... 소리치면서 울면서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결국에 엄마는 떠났죠. 그때 제일 슬펐어요. 엄마생각도 많이 나고 아빠랑 살아도....다행히 아빠랑 살고 혼자 살았으면 싫었을 텐데 다행히 아빠랑 같이 살아서....

Q: 국가, 나라라는 거 생각했을 때 어떤 느낌이야? 무서운 호랑이 같아 예쁘고 따뜻한 정원 같아?

A: 그런데 북한은 무서울 거 같아요. 한국은... 그땐 아무 생각 안 들었어요. 엄마가

오라고 그래서 그냥 왔어요. 그땐 뭐 예쁜 장미 같다 호랑이 같다 그런 생각 아무 것도 안 들었어요. 아 그냥 엄마 만나러 가는 구나 그래서 신나고... 비행기 타고 왔지요.. 엄마가 중국에서 떠난 다음에요 며칠인가 몇 달 후에 한순간 엄마가 싫어졌어요. 그냥.. 싫었어요. 아빠랑 주욱 영원히 살아야 하는구나 하고 살았는데 엄마가 한국 오라고 하니깐 당연히 당황스럽잖아요. 마음 준비 안하고 엄마 보러 나와서 비행기 타고 왔죠.

Q: 중국에서 잘 살고 있었잖아 그러다가 갑자기 남한에 오게 됐잖아.. 나라가 바뀌었다는 게 어떤 느낌이야?

A: 한국에 왔을 때 어색 했어요 모든 게 다 어색하고 그냥 다 중국이랑 다르고 한글 하나도 못 알아보고 학교도 그냥 엄마가 일반학교 가라고 넣어줘서 갔던 거고 일반 학교 간 것도 후회 되고 다시 한 번 일반학교 내가 다녔던데 가고 싶어요

Q: 왜?

A: 복수하러 가고 싶어요.

Q: 어떻게 복수해?

A: 그때 그 남자에 한명 때려주고 싶어요.

Q: 그 아이가 괴롭혔어?

괴롭혔다기 보다는 변태예요.. 한국말 못하니까 아무 말도 못 했어요 그냥 바보 처럼 있었죠. 거기 다시 가서 제 성격을 보여주고 싶어요. 저보다 키도 작았어요.

Q: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줘야 할까?

A: 그죠

Q: 지금 대한민국이 OO이를 잘 보호해 주고 있다고 생각해?

A: 네

Q: 어떤 점에서?

A: 다요.. 아무 위험한 거 없이 잘 있잖아요. 다치지 않게.. 그리고 다른 나라 갔을 때 보호해주는 것 같아요

Q: 중국에 살 때도 OO를 잘 보호해준 것 같아?

A: 네... 음...무서웠어요....

Q: 어떤 점이 무서웠어?

A: 엄마가.... 그때는 아무생각도 안 들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언니들한테 들었는데요 엄마는 북한사람이니까 중국에서는 편하게 못산다고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항상 엄마가 피해 다니고 저는 옆에서 좀 무서웠어요. 보기 싫어요. 막 경찰들이 와서 집 뒤지고 아빠까지 숨고 그러니까 아 나도 숨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죠.

Q: 아빠는 왜 숨으셨어?

A: 아빠도 숨었나 안 숨었나 확실하지는 않은데요 엄마가 숨은 건 기억이 나요 왜냐면 저도 엄마랑 같이 숨고 그랬거든요

Q: 중국과 한국 중에 어느 나라가 국민을 더 잘 보호 해주는 거 같아?

A: 한국이요 한국은 맘껏 자유잖아요 중국은 북한사람들 경찰들이 찾고 중국에서 교회를 믿었다고 하면 경찰들이 그냥 잡아가고.. 그런 거 내가 봤어요.. 길가다가 그 교회에 있던 사람이.. 우리엄마 친구 한사람이... 같이 학교 다니던 반 아이 엄마가요 그 교회에 다녔는데 갑자기 경찰들이 딱 문 열고 들어가서 끌고 나와서 북한으로 끌고 갔어요.

Q: 한국이 살기에 더 자유로운 나라인 것 같아?

A: 네

Q: 그럼 자유로운 나라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

A: 아무느낌 없었어요. 여기 한국 와서 전 지금 알았어요. 여기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 는 거 엄마도 아빠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

Q: 그걸 알게 됐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

A: 아~~ 그렇구나 했어요 좋구나.

Q: 그렇지 못한 중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하면 어때?

A: 나빴다

Q: 중국에 있는 친구들 생각하면 어때?

A: 빨리 한국에 왔으면 좋겠다.

Q: 한국이 자유롭게 잘 살 수 있어서?

A: 네

Q: 한 나라의 국민이 되려면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 OO가 한번 골라볼까?

- 1) 그 나라에서 태어나는 것
- 2)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지는 것
- 3) 그 나라에서 오래 사는 것
- 4) 그 나라 말을 할 수 있는 것
- 5) 그 나라의 문화적 전통을 이어가는 것
- 6) 그 나라의 국민임을 느끼는 것
- 7)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 나라의 사람인 것 (특히 엄마가 중요함)

8)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

A: 나는 그 나라 말을 할 수 있는 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번 4번 7번이요

Q: 예술이는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해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해?

A: 한국사람.. 한국에 있으니까..

Q: 그런데 중국에서도 살았고 중국국적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 하는 이유는 여기 살고 있어서?

A: 네...중국에서는 계속 피해 다녀야 하잖아요. 중국에는 그냥 놀러 가보고 싶어요. 사는 건 한국에서 살고요 한국말 빨리 배워서 여기서 점점...

Q: 너의 나라가 어디냐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할거야?

A: 중국이요...

Q: 왜 그렇게 생각을 하니?

A: 태어나고 자랐잖아요...

Q: 그럼 나의 나라는 중국이지만 한국국적을 택한다면 그 이유는?

A: 여기서 살아야 하니까요.. 엄마랑 같이...

Q: 내가 한국국적을 택해서 한국 사람이 되더라도 나의 속은 중국 사람인거야?

A: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한 번 가서 돌아보고 싶은 그런 나라예요 중국에는 살기 싫어요.

Q: 그럼 다시 물어볼 게 한국국적을 택하더라도 나의 나라는 중국인거야?

A: 네... 태어났으니까...

Q: 너에게 나라라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거야?

A: 네.....

Q: 이제는 엄마가 한국 사람이 되셨잖아.. 자랑스러워?

A: 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 대단한 거 같아요.

Q: 한국에 사는 게 자랑스러워?

A: 네...

Q: 자랑스럽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면 언제야?

A: 자랑은 아니고... 중국보다 여기가 편하고 중국에 있는 애들한테 말하고 싶어요. 엄마가 북한사람이면... 한국은 자유롭게 살 수 있고 경찰 때문에 피해 다니지 않아도 되고... 그런데 한국 오니까요 중국에서는 경찰들 무섭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경찰들 보면 무섭고 피하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고요 항상 친구들이랑 나가서 놀면요 경찰차가 앞에 있으면 막 뛰어요 무서워요 그래도 요즘 들어서 는 괜찮아졌어요.

Q: 그럼 나 한국인이구나 하고 느껴진 적 있어?

A: 지금...

Q: 왜?

A: 뭔가 점점가면서... 처음에 올 때는 아 나 중국 사람이예요 뭔가 자랑하는 느낌으로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요즘 따라서 아 나는 한국사람 이구나 여기서 공부하고 여기에 있으니까..

Q: 한국인이라고 생각이 들면 외국인한테 한국에 대해서 자랑해야 한다면 뭐 자랑할 거야?

A: 전 그냥 중국에 있는 애들한테..... 엄마가 북한, 아빠가 조선족이면 막 피해야 하잖

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내 땅처럼 자유롭게 살고 피하고 그런 거는 없으니까 한국에 오면 행복할거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Q: 자유로운 사회가 어색하진 않아?

A: 아니요 좋아요 행복해요

Q: 중국에서 살던 때를 생각하면 어때?

A: 싫었죠.... 그냥 중국은 여행으로 가고 싶어요... 근데 여행은 가봤죠 항상 불안했어요 경찰 만나면 엄마는 붙잡혀 가니까.. 근데 거기서 살던 어떤 사람이 한번은 엄마를 신고 했나 봐요 뭐 엄마는 북한사람이라고 그런 거 신고 했나 봐요...

Q: 중국에 여행갈 때 한국여권, 중국여권 중에 어떤 여권 낼 거야?

A: 어우 왜 그러세요. ㅎㅎ 한국꺼요... 제가 말 했잖아요 중국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한국인처럼 중국 가서 놀고 싶어요.

Q: 너에게 국가란 어떤 거야?

A: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 한국은 자유롭게 중국은 피하면서.... 충격적인 게 내가 만약에 어렸었다면 5살? 아무 기억도 안날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성장하면서 보게 되니까 계속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무섭고 불안스럽고 그런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모르던 그냥 중국에 살고 싶다고 중국 사람이라고 할 것 같아요.. 지금 그런걸 아니까 한국 사람이라고..